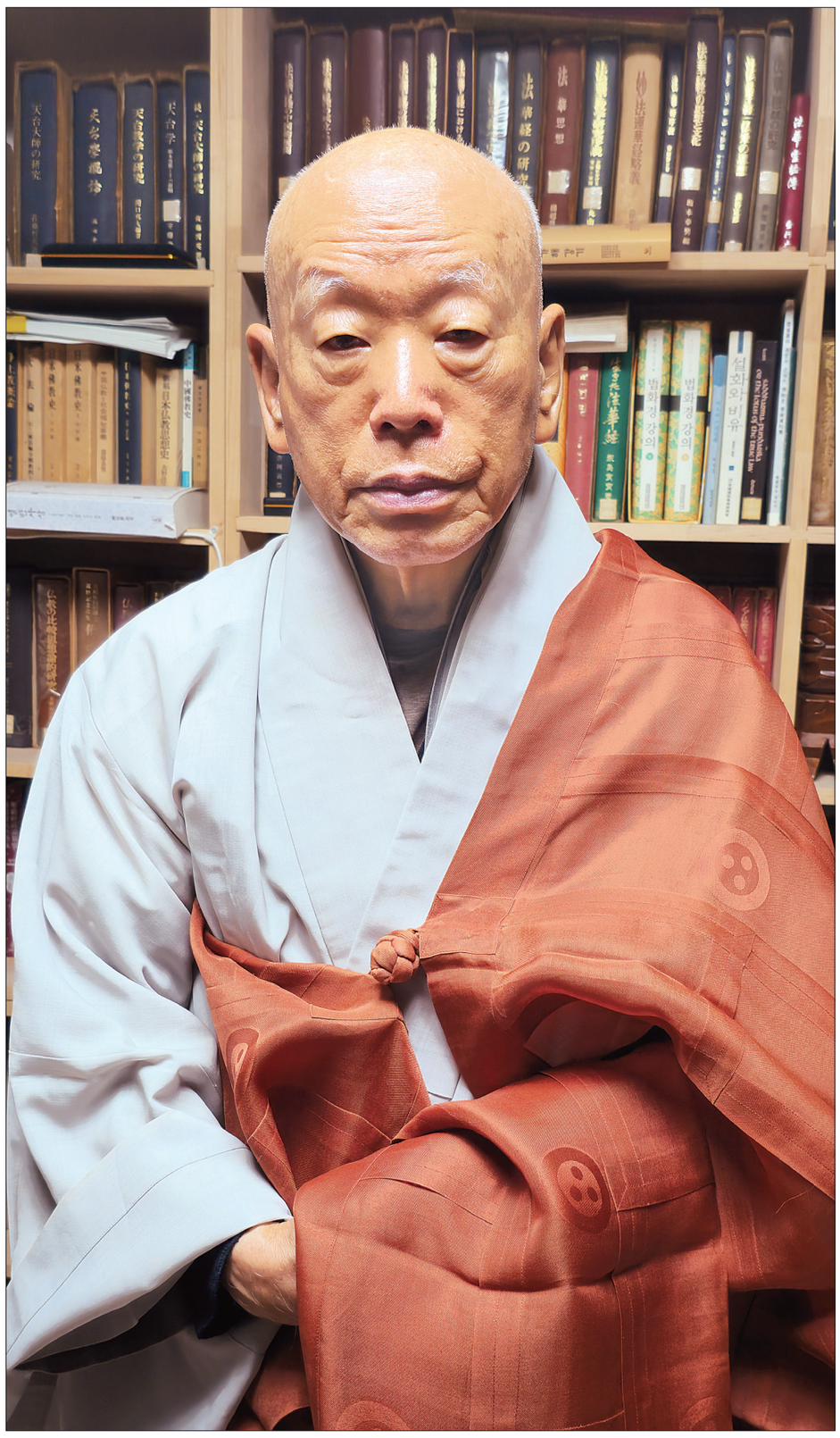
지상백고좌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대종사

“우린 본래 부처, 佛法대로 실천하면 성불”



현해 대종사는… 1958년 월정사에서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0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종비생 1기로 입학해 1968년에 졸업했으며, 1973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초청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고마자와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와세다대, 다이쇼대에서 동양철학과 천태학을 수학하고 귀국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3 · 7 · 10대 종회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및 대종사로 추대됐다. 현재 (재)불교문화진흥조계종 성찬회 이사장, 월정사 및 법종사 회주로서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에서 대중을 만나고 있다.

가을빛이 완연하다. 가로수들이 오방색으로 단청을 한 듯 세상은 환하게 빛난다. 발밑에 뒹구는 낙엽 소리가 가을이 지나가는 소리로 들린다. 연암 현해 대종사는 2004년 1월에 월정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고 서울 도봉에 바랑을 내려놓았다. 북한산 주봉을 마주하고 선 법종사는 월정사 서울 포교원이다. 법종사는 5층으로 된 신식 건물이지만, 어쩐지 오대산의 바람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다. 현해 스님의 주석처인 서울 법종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무릎이 아파 예전처럼 기도도 못하고, 붓글씨를 쓰면서 지내요. 왼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오른쪽 귀는 약간 들려요. 보청기를 끼면 세수할 때 빼야 되고 잠 잘 때도 빼야 되고, 끼었다 뺐다 하니까 귀찮아 가지고 사용을 안 해요. 이제 나이 들면 쓸데없는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이지.”

세납 90세이신 스님은 요즘 서예 공부로 소일하신다고 했다. 서예 공모전이 있으면 재미삼아 출품하기도 하신단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마가목 차를 내주셨다.

“옛날부터 늙은이가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허리가 안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관절에 좋답니다. 법종사 정원에 마가목 몇 그루를 키워서 직접 만든 차입니다.”

현해 스님은 1958년 월정사에서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0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수행하시는데 버팀목이 되는 은사스님의 가르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현해 스님은 내가 “우리 은사스님에게 배운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첫째는 어른을 모시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스님은 노스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부당한 명령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불사하는데 내 개인의 사정이나 내 개인의 입장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사를 한다는 게 절대적이라 밥을 굶어가면서도 불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오대산스님들의 수행전통이 유명한 이유를 여쭈었더니 “한암 스님은 상원사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참선, 경, 의식, 염불, 가람수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직접 가르쳤다. 그것이 바로 오대산의 전통”이라고 했다.

“한암 스님은 아침 예불하고 나면 반드시 〈금강경〉을 독송해야 되고, 금강경 독송 후에는 1시간 기도해야 되고, 1시간 기도 후에는 참선을 했어요.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하루종일 참선을 했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감자 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스님들도 이유 없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객스님들도 울력에 동원되었을 정도로 철저했지요.”

대중과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일도 같이 하는 것이 몸에 밴 한암 스님의 서릿발 같은 수행 정신이 오대산 가풍을 빛나게 하는 것 같다. 현해 스님은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종비생 1기로 입학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 당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현해 스님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동국대 종비생 1기, 日초청 유학생 선발
박사학위 받고 귀국 ‘법화경’ 15년 강의
‘한마음 가운데 삼천세계가 있다’ 경구에
‘법화경’ 공부…“중생, 진실 이끄는 經”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 좋아해”
상불경보살, 자길 낮춰 남 존경하는 보살
누구나 존경받는 성품 갖춤을 의미
대승불교 ‘인간 존중’ 정신 담겨있어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반드시 스님의 안내로 절을 돌아보면서 사찰 역사와 불교 관련 설명을 직접 듣는 시간이 있었다. 안내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주지였던 은사스님이 직접 안내를 진행했다. 그런데, 젊은 교장이 제일 뒤에 서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해 스님은 은사스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 성질을 부렸다.

“교장선생과 거친 말이 오가면서 ‘불교도 현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출가 전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후배 하나가 서울에 먼저 와 있었는데, 동국대 종비생 모집을 알려주고, 원서도 내주고 하여 대학에 갔어요.”

현해 스님은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일본의 초청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공부했다. 학비는 면제 받았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고생도 많이 했단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15년 동안 법화경 강의를 하셨다. 동국대에 입학해 불교대학 학장이었던 김동화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화엄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일념삼천설(一念三千設), 즉 ‘한 마음 가운데 삼천의 세계가 있다’라는 가르침에 놀랐지요.”

현해 스님에 따르면 〈법화경〉 사상의 핵심은 ‘공즉유(空卽有)’이다. 일체의 존재는 자기라고 고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엄연한 현실은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지만, 한때는 〈법화경〉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전 출판 역사를 보면 조선 500년 이후부터 정화를 거쳐 우리 종단이 정식으로 성립되기까지 한 50년 동안에 경전 출판은 〈법화경〉이 제일 많습니다. 출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은 내용이 거의 공(空)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空)을 설명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도 전부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법화경〉은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만 해놓으면 누구든지 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 뜻을 알게 되니 신도들에게는 오랫동안 〈법화경〉이 더 친근감이 있지요.”

〈법화경〉은 중생을 위해 방편을 열어 중생들이 진실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려는 경이다. 깨침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보살, 성문, 연각의 중생에게 방편을 베풀어서 그 방편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려는 것이다.

현해 스님은 1996년에 〈법화경요품강의〉를 출간했다. 2006년에는 산스크리트본, 한문번역본, 영문번역본, 한글번역본 등을 대조해가면서 연구하여 〈묘법연화경〉을 세 권으로 완간했다. 이 작업을 위해 자료 조사에 3년, 번역에만 7년이 걸렸다.

13면에 계속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